



## 유럽 증시, 지표 부진, FOMC 의사록 경계심리로 하락

### 유럽 증시 리뷰

4 일(화)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증시는 독일 수출입 지표 부진, FOMC 의사록 공개 앞둔 경계심리, 제한된 거래량 등에 영향 받으며 뚜렷한 방향성 없이 하락 마감(STOXX 50 -0.16%, DAX -0.3%, CAC 4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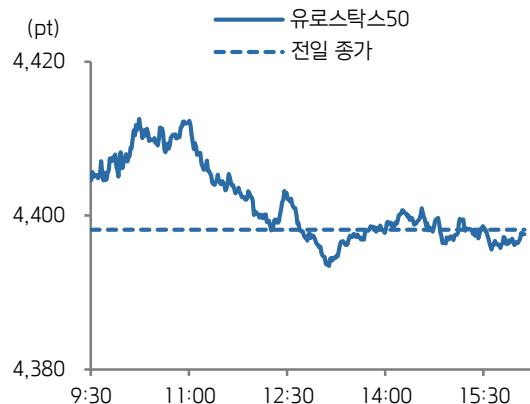
독일 5 월 수출은 전월대비 -0.1%(예상 0.3%, 전월 1.0%), 수입은 전월대비 1.7%(예상 0.0%, 전월 -0.1%), 무역수지는 144 억 유로(예상 176 억 유로, 전월 165 억 유로)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대미 수출 -3.6%, 러시아 수출 -7.4%, EU 수출 -1.5% 기록하는 등, 대미, 대러 수출이 큰 폭으로 부진한 것에 기인. 일각에서는 "무역이 이제는 과거처럼 독일 경제의 강인한 성장 원동력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급망 혼란, 중국이 종전 독일에서 수입한 상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 것이 수출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분석

RBA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4.10%로 동결.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 인상한 이후 지난 4월 금리를 동결한 이후 5, 6 월 두번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가 7 월에 다시 동결 결정. RBA 총재는 지금까지의 인상 영향과 경제 전망을 평가할 시간을 갖고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언급. 5 월 CPI 는 둔화되었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고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을 강조.

미국 상무부가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국 업체의 접근 제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 중국 AI 기업들이 지난해 10 월 나온 미국 정부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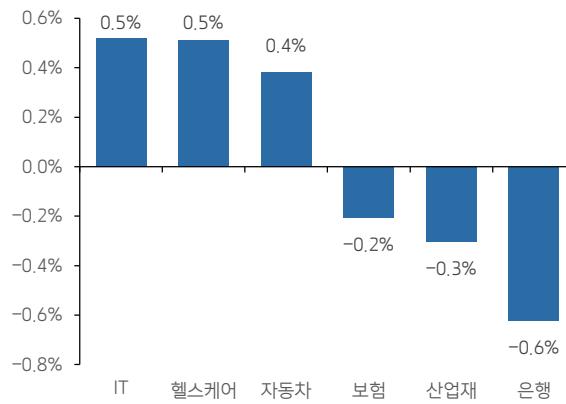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중국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미정부와 의회에서 고려되고 있는 등 수출통제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는 수출통제 최종본 발표 예정. 중국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규제를 검토해 미중갈등은 심화될 가능성 부각.

### 유로스탁스 50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93.31	-0.35%	USD/KRW	1,301.19	-0.53%
코스피 200	341.59	-0.43%	달러 지수	103.09	+0.1%
코스닥	890.00	+0.08%	EUR/USD	1.09	-0.01%
코스닥 150	1,367.08	-0.28%	USD/CNH	7.23	+0.02%
S&P500	4,455.59	+0.12%	USD/JPY	144.46	-0.01%
NASDAQ	13,816.77	+0.21%	채권시장		
다우	34,418.47	+0.03%	국고채 3년	3.617	+1bp
VIX	13.70	+0.96%	국고채 10년	3.630	+4bp
러셀 2000	1,896.78	+0.43%	미국 국채 2년	4.936	+0bp
필라. 반도체	3,703.62	+0.83%	미국 국채 10년	3.855	+0bp
다우 운송	15,614.03	+0.54%	미국 국채 30년	3.863	+0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90.99	-0.16%	WTI	71	+1.73%
MSCI 전세계 지수	685.22	+0.02%	브렌트유	76.25	+2.14%
MSCI DM 지수	2,971.70	-0.01%	금	1933.6	+0.21%
MSCI EM 지수	1,008.05	+0.29%	은	22.97	+0.32%
MSCI 한국 ETF	64.79	+2.22%	구리	376.85	-0.2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2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1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4.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 미국 증시 휴장 여파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의 서비스업 지표 결과가 국내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 변화 유발 가능성
- 역외 원/달러 환율 1,300 원대 하회가 외국인 순매수에 미치는 영향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상반기 랠리를 마치고 하반기에 진입한 가운데, 아직까지 연준의 정책, 미국 등 주요국 경기침체 등 매크로 상 우려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 이는 7 월 주요국 증시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돌발 악재들이나 시장이 새롭게 소화해야하는 신규 악재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만큼 지수 하단을 크게 열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

또 단순 통계 상으로 참고해볼 만한 계절적인 패턴이긴 하지만, 7 월 달은 여느 달 보다 증시 수익률이 양호했다는 점도 금주 중 대형이벤트들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지수 하단을 지지해줄 수 있는 요인. 일례로 2000 년 이후 코스피와 나스닥의 월간 평균 등락률을 계산해보면, 코스피의 7 월 등락률은 +0.8%로 11 월(+2.5%), 4 월(+2.2%), 12 월(+1.3%), 3 월(+1.0%) 다음으로 수익률을 높았던 달이었음. 나스닥의 7 월 등락률 역시 +1.6%로 10 월(+2.2%), 11 월(+1.6%) 다음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달로 집계되는 등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2 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기대감 등이 역사적으로 7 월 달의 양호한 수익률을 만들어 냈던 것으로 보임.

이번에도 7 월 상승 패턴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국내 한국 수출(YoY, 5 월 -15.2% → 6 월 -6.0%)이나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YoY, 5 월 -19.2% → 6 월 -15.7% → 7 월 -9.4%)의 바닥 통과 구간 진입을 감안 시 2 분기 실적시즌 기대감에서 비롯된 양호한 수익률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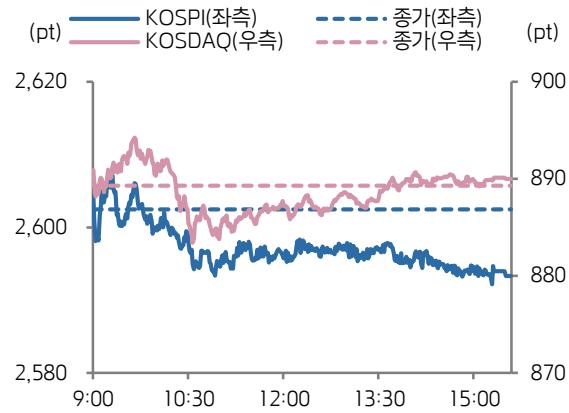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고민이 되는 부분은 대표 심리지표인 미국의 Fear & Greed Index 가 7 월 3 일 기준 79pt 로 Extreme Greed 영역(극도의 탐욕, 75pt~100pt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단기 주가 과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올해 6 월을 제외하고 최근 약 3년동안 Fear & Greed Index 가 75pt 를 상회하면서 Extreme Greed 영역에 진입했던 시기는 '21년 11년 9월, '22년 12월 1일, '23년 2월 1일 등 총 세 번의 사례가 있음. 당시 75pt 를 상회한 이후 1 주일 뒤 S&P 500 과 코스피의 평균 등락률은 각각 -0.6%, -0.8% 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단기 주가 과열을 빌미로 차익실현 물량 부담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

정리하자면, 현시점에서 주식시장에는 상방요인(계절적인 상승, 실적시즌 기대감 등)과 하방요인(단기 주가 과열 우려, FOMC 불확실성 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즉, 미국 고용, CPI, 7 월 FOMC 등 대형 매크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단기간에 차익실현 압력을 높아질 수는 있음. 보수적으로 봐도 그 과정에서 증시 조정이 출현할 수는 있겠지만, 조정의 형태는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성격을 띠는 중립 수준 주가 흐름을 베이스 경로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월요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로 반도체, 2 차전지 등 주력 업종 내 종목군들간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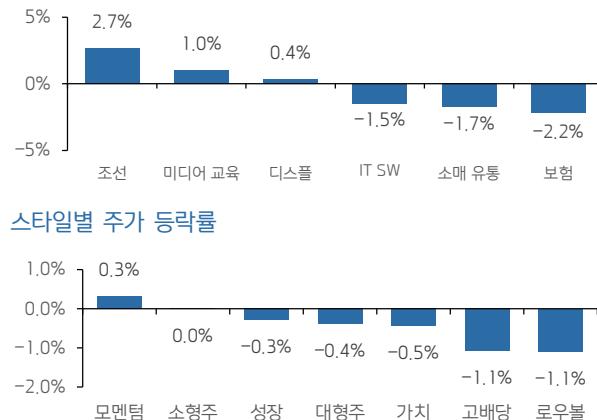
금일에도 미국 증시 휴장 여파 속 주 후반 대형이벤트(미국 고용,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앞두고 관망심리가 상존하 가운데, 재차 1,300 원대를 하회한 역외 원/달러 환율, 중국 서비스업 지표 등을 소화하면서 제한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전반적으로 지수는 정체될 것으로 보이겠지만, 2 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이 재차 부각되면서 수급이 재차 집중되고 있는 엔터주, 테슬라발 호재 및 수출 실적 호재에도 수급 부담으로 업종 내 주가 변동성이 극심한 2 차전지주 등 업종 및 테마 간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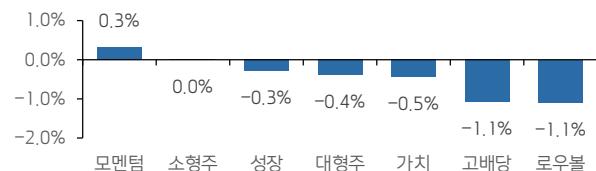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